

##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공주 · 윤순덕 · 강경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Factors Effecting on the Rural Life Satisfaction of Returners to the Farm After Retirement

Park, Gong-Ju · Yoon, Soon-Duck · Kang, Kyeong-Ha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 This research tried to present some basic data necessary to give effective support to urban retirees who already returned to the farm by looking into factors effecting on their adjustments to the lives before they returned to the farm and after they did so to know how well they adapt to the rural lives. For the purpose, we made a survey of 408 returners to the farm over the age of 50 for 6 days from October 18 to October 23 in 2004 using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 the following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with the rural life occurred by the sociological demographic changes according to 'health condition', 'subjective economic ability' and 'previous job'. Second,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with the rural life which was taken place by the reasons before they moved to the farm is effected considerably by what made them decide to return to the farm first, whether they prepared for it or not and how much money they have to do so. Therefore, to succeed in adjustment to the rural lives, their decision should be made by positive causes, they have to prepare concretely for it before they carry out their plans and they had better have enough money to move. Third,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with the rural life occurred by the reasons after they moved to the farm is effected by 'satisfaction with the farming information', 'the number of friends or neighbors', 'the frequency of meeting the friendly', 'the level of intimacy with neighbors' and 'their efforts to improve the relations with other residents'. And the sensitiveness to perceive the inconvenience according to the rural life is related strongly to the satisfaction with the rural life in the above 6 areas. Fourth, the regression analysis implemented to find how much the above 3 factors effect on the satisfaction with the rural life shows that it is 'returner's current health condition', 'farming education', 'farming fund' and 'effort to be intimate with other residents' that are very important.

**Key words** : Returner to the farm after the retirement, Returning to the farm, Satisfaction with the rural life, Rural settlement, rural adjustment

### I. 문제제기

요즘 농촌의 인구구조에 조용한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젊어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하나 둘 농촌마을에 돌아와 터를 잡고 사는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한적한 농촌마을을 찾아 이주하는 중장년세대에게 농촌은 평생직장을 약속하는 새

로운 일터이며, 인생을 설계하는 희망의 장이 된다(김성수 등, 2004, 이동하, 1998). 아직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이상 중·장년층 중 58.2%가 직장은퇴 이후 농촌에서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되도록 한적한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윤순덕 등, 2005),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민 중 향후 농어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6.1%로 2명 중 1명 정도는 농어촌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화, 산업화 시대에 더 나은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한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교육을 마치고 그 자신들 역시 일선에서 물러난 지금, 이제는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 그리고 소일거리를 찾아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다. 서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베이비 부머들(baby-boomers)의 농촌으로의 이동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Stuefen & Dykstra, 1997)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한편 중장년 세대의 귀농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기존의 농업인들과 경쟁관계가 될 귀농인구를 환영하고 그들의 귀농과정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농현상이 지니는 사회적, 정책적 함의는 경제적 논리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김형용, 1998, 서규선·변재면, 2000, 이동하, 1998, 정한모, 2002). 귀농현상을 단순한 전직현상으로 이해할 경우 우리는 그것이 지닌 사회적 함의를 올바르게 평가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도시 근로 은퇴자들의 농촌이주 현상은 사회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농촌지역의 노동인력의 유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김성수 등, 2004, 김형용, 1998, 정철영, 1998). 지난 몇십년 동안 농촌사회가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시작된 주민들의 대량 이주로 인해 결국 농촌사회의 유지기반이 붕괴되기에 이른 현 시점에서(김형용, 1998) 농촌으로 이주하여 새로이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도시은퇴자들은 농촌사회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앞으로의 농촌문화 전승과 관련이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업은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근간으로서 전통문화보존의 장(場)이기도 하다(농촌진흥청, 2004). 이에 농촌과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매우 반가운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도시 은퇴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도시은퇴자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이며, 거시적으로는 침체된 농촌사회의 부흥과 함께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높아지는 요즘, 은퇴 후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 은퇴자들의 실제 농촌 이주과정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으며, 그러다보니 체계적인 준비없이 농촌에서의 낭만적인 삶만을 기대하고 갔던 무분별한 귀농자들 또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귀농현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주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적응과정이다(정한모, 2002).

그 동안 귀농관련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기 직장인은 물론 실제 은퇴 후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촌이주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은퇴자들이 농촌에 가서 살 수 있는 공간조성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귀농의 개념

귀농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와 농사를 지음'을 말한다. 이 전제에는 이전에 농촌에 있었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에 사는 동안 이들이 농업을 영위하였는가의 여부는 내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되돌아온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들이 과거에 농사를 지었는가는 논외로 하고 있다. 일부 귀농 연구자들은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농촌에 살았던 사람도 언급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귀농이라는 용어에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짓지 않았던, 농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강대구, 2006).

박영일(1998)은 귀농인을 농촌 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U-turn자, 도시출신 또는 재촌(在村) 비농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취농자(取農者)로 분류하였다. 그에 비하여 이정관(1998)은 귀농자를 농촌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했던 자가 농촌을 떠나 비농업적 직업을 갖고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농촌에 정착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들이 노후를 농촌에서 살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귀농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남정덕(2000)은 노인이 농촌으로 돌아가 영농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귀농형 실버타운'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남정덕의 정의는 실버타운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관점은 다르나, 노인이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귀농'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의 영역을 은퇴자가 농촌으로 삶의 장소를 옮겨서

농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정도의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될까지를 범주에 포함하였다.

## 2. 은퇴 후 노년기 귀농의 추이

노인인구가 타 연령집단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 때, 길어진 노년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더구나 경제 침체로 은퇴연령은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은퇴 후 일을 갖기 원하는 노인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민들 중에는 노년기 인생에서 거주지를 바꾼다거나 생활양식을 바꾸어 보려는 의사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성훈, 2006).

이 때 농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농촌은 우선 정년이 필요없는 농업이라는 일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최근 고령사회의 해법은 '일하는 노인'에서 찾고 있는데 일과 평균수명을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하는 사람이 노는 사람보다 14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한다(박상철 등, 2002). 그리고 농촌은 무엇보다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다. 세계의 장수지역으로 유명한 일본의 오키나와 오기미손마을의 장수요인은 날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 산과 바다 및 따듯한 기후 등 환경적인 영향 등이 가장 큰 요인이다(농촌진흥청, 2004). 이에 따라 농촌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은 물론이고 적절한 일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주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은퇴 후 장거리 이동(long distance migration)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인구수의 절대적인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은퇴 후 기간 증가, 건강상태의 개선, 연금제도 등으로 인한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 보험, 공공정책 등 정부 보건프로그램의 향상 등으로 지금의 은퇴자들은 과거에 비해 이주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Graff & Wiseman, 1978, Lee, 1980, Warnes & Law, 1982, Palmer & Gould, 1986). 일본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은퇴한 노인세대들의 정년귀농 붐이 일고 있어, 해마다 신규 취농자가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는 이들의 60%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정년귀농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윤순덕, 2005). 미국은 은퇴 후 약 25%의 인구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전체 3,141개의 county 중 440개의 County를 'Retirement Destination'으로 정하여 도시지역에서 은퇴한 후 농촌으로 이주를 장려하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농업사회보장기구에서 1986년 노후에 농촌생활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 집합주거단지인 Marpa(Maison d'Accueil Rurale pour Personnes Agees)를 설치하여, 현재 115개가 환경여건이 좋은 농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우리나라의 귀농현상을 살펴보면, 과거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이주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귀농은 이어져 왔으나, 8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농촌으로의 귀향운동은 사회일반적인 추세로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이후 2004년 12월까지의 귀농가구는 22,703 가구로 알려졌다(농림부, 2006). 1980년대 부터 IMF 이전까지의 귀농은 끊임없이 이어진 향도이촌(向都移村) 속에서 늘어난 가는 각종 도시집중화 문제야기로 도시생활에 회의를 갖게 된 사람들의 귀농이 많았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최근의 귀농은 어떠한가? 전과는 달리 각박한 도시환경에 대한 불만과 웰빙(Well-Being) 바람과 함께 농촌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귀농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은 이제 농촌도 살만한 공간이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노년 세대인 도시은퇴자들의 귀농과 젊은이 중심의 일반 귀농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많은 도시은퇴자들은 직업이나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를 떠나 이제는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자 이주한 사람들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각종 문화·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오염, 높은 물가, 주택난 등의 부담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도시에 거주함으로써 감당해야하는 부담을 도시로부터의 추출요인(pushing factors)이라 한다. 반면, 농촌에서의 삶은 여러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쾌적한 자연환경, 적은 생활비, 조용한 전원생활의 등의 여러 매력은 가지는데, 이를 농촌 흡인요인(pulling factors)이라 한다(서규선·변재면, 2000). 중노년 세대들의 귀농은 농촌 흡인요인에 의해 이주를 결심하지만 보다 젊은 세대의 귀농은 도시추출요인에 의해 이주를 결심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추출요인과 흡인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농촌이주가 결정된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사회적 상황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농촌의 변화 또한 귀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에 농촌의 역할이 단순히 농업생산이 아닌 경제활동의 공간, 휴식공간, 환경 및 경관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전원생활의 선호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농촌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농촌정주 개념의 귀농현상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처럼 도시민들의 농촌으로의 이주는 이주를 결심할 당시 상황에 따라 이주의 성격이 다르고 그 적응과정 또한 달라질 것이나, 아직까지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은퇴 후 건강하고 질 높은 삶, 그리고 소일거리를 찾아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중노년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농촌에서의 삶의 적

응과정을 탐색하고 적응을 돕는 기제가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 3.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적응

적응은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요구가 과연 그 환경 속에서 만족되느냐, 만족되지 않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이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적응 상태에 있게 된다. 귀농지역에서 적응을 위해서는 정신적 불안 극복, 새로운 직업 및 기술의 습득, 주거확보, 농촌생활 양식 및 문화가치의 습득으로 귀농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에 관한 것이다(이동하, 1998). 귀농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정도가 귀농 인구이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Lee & Kim)으로, Fielding(1974)은 이주 과정을 이주 동기의 형성, 이주 의사결정, 이주 실행까지의 이주 탐색단계와 이입지에서의 정착 및 적응이라는 이주 적응단계 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이주자가 이입지에서 욕구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환이동을 하거나 재이주를 할 수도 있으며, 만일 적응이 성공적이면 다른 사람들의 이주를 돕거나 자극하게 된다고 하였다.

농촌이주 후 순조롭게 잘 정착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 요구가 과연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적응 상태를 말한다. 귀농은 생활환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기 때문에 귀농지에서 상당기간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귀농이 새로운 직업선택인 만큼 농촌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학자(Tolbert, 1974, 박영일, 1998에서 재인용)에 따라 다르다.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이 농업이라는 새로운 활동과 농촌이라는 생소한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은퇴 후 귀농인들의 농촌적응을 위해서는 농촌이주 전 준비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농촌이주 후 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적응 노력을 한다. 이러한 적응 노력에도 거주지역의 선택, 다양한 소득원천의 추구, 비공식 조직에의 참여 등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유지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농촌정착 적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농림부, 2000).

농촌이주 초기에는 어려움으로, 재배기술, 경영기술, 자금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정착기로 갈수록 자금적인 문제와 노동력의 부족, 판로의 어려움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소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대부분 계속 농업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귀농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취농 정착자금 융자 지원, 취농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지속적인 영농상담과 컨설팅, 취

농자 교육 및 연수 등이 가장 시급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강대구 등, 2006).

그리고 귀농자의 적응과 관련하여 귀농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신적 불안과 기술의 습득, 경제적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 이웃, 친구 등과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귀농인의 귀농지에서의 긴장 발생의 원천은 확대 가족, 친척, 이웃, 문화적 환경과의 괴리에서 오는 고독으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긴장의 극복은 이출지와의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킴과 동시에 귀농지에서의 새로운 관계형성이 효과적임을 지적하고 있다(Melville, 1978).

### 4. 농촌생활만족도

생활만족이란 과거, 현재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의미한다(서병숙, 1995). 생활만족도는 은퇴를 한 이후 노인들의 생활양식을 검증하기 위한 중속장치로 이용되면서 노년기의 적응이나 성공적인 노화 및 정신건강의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김태현, 1994).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적응 요인을 도출해 내기 위해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적응 영역의 농촌생활만족도를 설정하였다.

먼저 귀농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어떠한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연령이나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가족형태 등이 생활만족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구분석(1999)은 연령집단별 농촌생활만족도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고, 이동하(1998)의 연구에서는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인다. 가족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삶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승덕, 1996). 생활만족도는 건강상태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박충선(1990)은 노년기의 건강상태는 모든 생활요소 가운데 생활만족도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결정요인이라 한다. 그리고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은 편이라고 한다(김재돈 · 남철현, 1997).

농촌이주 전 과정에서 귀농인들의 농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귀농을 위한 사전준비, 영농교육, 귀농지역 결정, 귀농을 위한 적절한 경제상태 등 여러 요인이 있다. 농촌이주를 위한 사전준비와 연습과정을 가진 귀농인들은 대체로 농촌의 삶과 경제적인 성취면에서 만족을 느끼는 반면, 계획없이 귀농하거나 수동적인 이들은 농촌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서규선 등, 2000, 정하석 등, 1998, 박영일, 1998, 정지웅 등, 2000). 귀농지역에 대한 사전조사와 계획, 사전 농촌생활경험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영농

교육, 적절한 귀농지역의 선정 등은 귀농자의 정착에 중요할 것이다(정한모, 2002). 귀농인들이 느끼는 농촌정착에 가장 많이 지적된 어려움은 당장의 생활비 부족, 자녀교육 문제, 영농법과 농사기술의 부족, 농지구입 및 임대, 농사일 자체가 고됨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살 집을 구하거나 수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귀농자의 대다수는 귀농교육이 농촌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구본석, 1999, 정지웅 등, 2000, 박영일, 1998, 이정관, 1998).

농촌이주 후 과정에서 귀농인들의 농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원관계, 농촌생활 인식정도 등의 요인이 있다. 귀농 후 이웃사람들과 빨리 친숙해진 귀농자,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귀농자, 교통이 편리한 지역과 의료기관 이용이 쉬운 지역에 사는 귀농자들이 농촌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혜영, 1999). 농촌사회의 특성상 지역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적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농촌마을에 새로이 진입한 귀농인들은 농촌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기 위해 마을사람들과의 인간적 유대관계가 도시에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농촌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귀농인들은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정한모, 2002).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구성

은퇴 후 도시에서의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을 알기 위한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농촌이주 전과 농촌이주 후 과정, 농촌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영역의 변인들을 설정하였다.

개인적 특성 변인은 조사대상자인 귀농인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족유형, 주관적 경제수준<sup>1)</sup> 등을 측정하였고, 농촌이주 전 변인은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이주 동기, 농촌경험정도, 농촌이주 준비정도, 영농경험 정도, 농촌이주 비용 등을 구성하였으며, 농촌이주 후 변인은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후 실태를 파악하

1) 주관적 경제수준을 측정도구로 설정하게 된 것은 생활만족 및 심리적복지 관련 다수의 선행연구들(한경혜, 2001, 윤순덕 등, 2001, 김경미 등 1990)에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서 주관적 경제수준이 주변인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경제수준의 질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기 위해 농촌거주실태, 영농활동 실태, 사회적 지원망, 농촌생활 인식수준 등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농촌생활적응 정도를 알기위해 위하여 농촌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농림부, 2000, 구본석, 2001, 한경혜 등, 2001, 이형실, 1996)를 기초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농촌생활만족도의 구성은 가족관계 만족도, 친구·이웃과의 관계만족도, 주거생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생활 만족도, 영농활동 만족도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의 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1점, “매우 만족한다”에 5점을 주어 6문항의 평균의 값을 내어 농촌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로 규정하였으며, 6문항은 농촌생활 만족관련 변인의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하였다.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Cronbach's  $\alpha$  값은 .80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귀농인 농촌적응 및 귀농자 교육, 귀농정책 관련 문헌을 고찰한 후 1차 연구로 농촌으로 이주한 50세 이상인 귀농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70개 시·군에 거주하는 귀농인 465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 선정되었다. 자료수집 과정은 우선, 연구자가 문헌 및 인터뷰 자료를 통해 일차적으로 준비한 질문지를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행한 뒤, 이를 토대로 설문문항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사전에 훈련받은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소속 모니터 49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에 참여한 모니터요원은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2000년부터 전국 88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모니터연수를 통하여 조사기법 등을 교육받고 현지에서 조사전문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조사 후 수거된 질문지 460부 가운데, 연구대상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52부를 제외하고, 총 40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자료처리를 위해 SPSS WIN 11.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중앙값 등을 산출하였다. 관련변인에 따른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 차이를 알기

위하여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차이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사후검증 방법으로 Scheffé's grou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변인과 농촌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관련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87.7%(358명), 여성이 12.3%(50명)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귀농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주체인 남성이 조사에 적극 응한 결과로 생각된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45.8%, 60대가 42.4%, 70세 이상이 11.5%로, 50~60대가 88.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직장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귀농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152명(38.5%), 중졸 98명(24.8%), 초졸 이하 71명(18.0%), 대졸 62명(15.7%) 등의 순으로, 과반수 이상(57.2%)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졸이상도 18.7%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노인의 교육수준을 분석한 「인구주택조사보고서」(통계청, 2002)의 초졸이하 78.0% 고졸이상 13.5%와 비교하면 은퇴한 귀농인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결과이다. 현재의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41.5%(168명), 좋은 편이다 이상이 37.3%(151명)로 좋지 않다는 86명인 21.3%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형태 조사결과 과반수 이상이 부부만 산다(224명, 57.6%)고 하였으며, 혼자 사는 경우는 7.5%(29명)로 나타나 은퇴 후 농촌귀농은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동거 및 노부모동거 가구 비율은 28.3%로, 상대적으로 독신가구 비율보다는 높으나 부부가구의 비율보다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함'이 32.6%, '그저 그렇함'이 44.9%, '불만족함'이 22.5%로 비교적 자신의 경제수준을 보통이상(77.5%)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 2. 관련변인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

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농촌생활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건강이 매우 좋다'고 한 귀농자가 '매우 좋지 않거나,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보다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고 했을 때 농촌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인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농촌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농촌이주 전 관련변인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이전의 과정변인에 따라 농촌생활만족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농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08)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성별	남성	358(87.7)	연령	50-59세	187(45.8)
	여성	50(12.3)		60-69세	174(42.7)
교육수준	초졸 이하	71(18.0)		가족형태	70세 이상
	중졸	98(24.8)	혼자 산다		29(7.5)
	고졸	152(38.5)	부부만 산다		224(57.6)
	대졸	62(15.7)	나(부부)+미혼자녀		60(15.4)
	대학원졸 이상	12(3.0)	나(부부)+기혼자녀		14(3.6)
		나(부부)+노부모+미혼자녀	35(9.0)		
주관적 경제수준	매우 불만족하다	23(5.6)	나(부부)+노부모+기혼자녀	1(.3)	
	불만족스런 편이다	69(16.9)	기타	26(6.7)	
	그저 그렇다	183(44.9)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27(6.7)
	만족하는 편이다	121(29.7)		좋지 않은 편이다	59(14.6)
	매우 만족한다	12(2.9)		보통이다	168(41.5)
		좋은 편이다		121(29.9)	
			매우 좋다	30(7.4)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

변수	구분	N	평균(SD)	t값, F값	Scheffe 검증
성별	남성	356	3.65( .63)	.78	
	여성	50	3.57( .58)		
연령	60세 미만	185	3.63( .58)	1.68	
	60세 이상~70세 미만	174	3.70( .66)		
	70세 이상	47	3.52( .66)		
교육수준	초졸 이하	71	3.65( .70)	2.81	
	중졸	97	3.58( .51)		
	고졸	152	3.61( .67)		
	대졸 이상	73	3.84( .55)		
건강상태	하(매우좋지않음, 좋지않은 편임)	86	3.33( .64)	39.7***	A
	중(보통)	168	3.52( .57)		B
	상(매우 좋음, 좋은 편임)	149	3.96( .53)		C
가족형태	혼자 산다	29	3.47( .64)	1.59	
	부부	223	3.65( .63)		
	기타(자녀·노부모 등과 함께 사는 경우)	135	3.70( .62)		
주관적 경제수준	하(매우 불만족, 불만족한 편임)	92	3.39( .68)	28.8***	A
	중(그저그려함)	183	3.56( .56)		B
	상(매우만족, 만족하는 편임)	131	3.95( .54)		C

\* p<.05 \*\* p<.01 \*\*\* p<.001

표 3. 농촌이주 전 변인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

변수	구분	N	평균(SD)	t값, F값	Scheffe 검증
농촌이주 결심계기	마음에 드는 곳이 생겨서	122	3.75( .64)	3.86**	A
	경제적인 여건 때문	95	3.52( .61)		A
	건강상의 문제 때문	84	3.64( .56)		A
	직장상의 문제	43	3.56( .71)		A
	가족간 갈등문제	12	3.18( .55)		B
	기타	44	3.82( .54)		A
농촌거주 경험여부	있 다	316	3.64( .62)	.01	
	없 다	90	3.65( .64)		
영농경험 여부	있 다	190	3.64( .63)	.00	
	없 다	216	3.64( .61)		
영농교육 이수여부	있 다	171	3.63( .61)	.02	
	없 다	235	3.65( .64)		
영농교육 도움수준	하(전혀 도움안됨, 도움되지 않는편)	9	3.41( .59)	1.98	
	중(보통)	26	3.47( .64)		
	상(도움, 매우 도움)	148	3.67( .59)		
농촌사정 인지도 여부	상(잘 알고 있다)	246	3.64( .61)	.26	
	중(보통이다)	75	3.69( .62)		
	하(잘 알지 못한다)	85	3.62( .66)		
농촌이주 준비여부	이주 준비기간이 있었다	220	3.72( .60)	6.54*	A
	이주 준비기간이 없었다	186	3.56( .64)		B
농촌이주 준비기간	단기	86	3.67( .57)	.60	
	중기	60	3.65( .66)		
	장기	71	3.76( .68)		
농촌이주 총자금	3,000만원 미만	168	3.43( .57)	12.81***	B
	3,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106	3.73( .59)		A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99	3.82( .67)		A
	2억원 이상	29	3.89( .51)		A

\* p<.05 \*\* p<.01 \*\*\* p<.001

표 4. 영농활동 실태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

변수	구분	N	평균(SD)	F값	Scheffe검증
귀농유형	U턴(농촌→도시→고향농촌)	133	3.56( .62)	2.70	
	J턴(농촌→도시→타향농촌)	97	3.71( .62)		
	I턴(농촌→도시)	174	3.70( .63)		
영농정보만족도	불만족함	72	3.41( .73)	10.77***	B
	보통	245	3.63( .60)		B
	만족함	85	3.87( .58)		A

\* p<.05 \*\* p<.01 \*\*\* p<.001

촌이주 결심계기'(F=3.86\*\*, p<.01), '농촌이주 준비여부'(t=6.54\*, p<.05), '농촌이주 총자금'(F=12.81\*\*\*, p<.001)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이주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생겨서, 경제적인 여건, 건강상의 문제, 직장상의 문제에 의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자가, 가족간의 갈등문제로 인한 이주 귀농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에 준비기간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준비기간이 없었다고 한 응답자보다 농촌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이주 총 자금이 3,000만원 미만일 때 농촌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이주자금이 많아질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농촌거주경험 여부, 영농경험 여부, 영농교육이수 여부, 영농교육 도움정도, 농촌사정에 대한 인지도, 농촌이주 여부·준비기간 등은 농촌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농촌이주 전에 농촌거주 경험이 있거

나 없거나, 영농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영농교육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농촌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나 잘 알지 못했을 경우에, 농촌이주 후의 농촌생활만족도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은퇴한 후 농촌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만족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촌이주를 위해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긍정적인 요인 속에서, 농촌이주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자금의 마련이다. 충분한 이주자금은 농촌생활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반대로 이주당시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아져 바로 또 다른 탈농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다. 농촌이주 후 관련변인과 농촌생활만족도의 관계**  
 농촌으로 이주한 후의 관련변인에 따라 농촌생활만족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사회적 지원망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 차이

변수	구분	N	평균(SD)	F값	Scheffe검증
비동거 자녀	7명 이상	4	3.50( .57)	.063	
	4~6명 정도	20	3.51( .63)		
	3명 이하	80	3.56( .57)		
형제·친척	7명 이상	43	3.87( .62)	4.88	
	4~6명 정도	45	3.61( .59)		
	3명 이하	66	3.50( .59)		
이웃·친구	7명 이상	179	3.73( .64)	7.69***	A
	4~6명 정도	82	3.70( .58)		A
	3명 이하	81	3.45( .60)		B
접촉빈도	거의 매일	194	3.77( .63)	5.41**	A
	1주-1달에 1회	132	3.55( .57)		B
	1년에 몇 번 이하	82	3.59( .68)		B
주민과의 관계수준	잘 지내고 있다	317	3.70( .62)	7.32***	A
	보통이다	76	3.13( .55)		B
	잘지내지 못한다	15	3.21( .48)		B
관계향상을 위한 노력수준	노력하고 있다	131	3.91( .69)	24.98***	A
	보통이다	122	3.64( .52)		B
	하지않고 있다	151	3.41( .55)		C

\* p<.05 \*\* p<.01 \*\*\* p<.001



먼저 영농활동 실태에 따라 농촌생활만족도가 차이는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영농정보에 대한 만족도 여부'(F=10.77\*\*\*,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러 정보원을 통해 들어온 영농정보들이 만족하다고 느낄 때 농촌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정보에 대해 만족하지 않다고 할 때 농촌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사회적 지원망 정도에 따라 농촌생활만족도가 차이는 있는지를 살펴보면(표 5), '이웃·친구의 수'(F=7.69\*\*\*, p<.001), '친밀하다고 여기는 사람과의 접촉빈도'(F=5.41\*\*, p<.01), '주민과의 관계 정도'(F=7.32\*\*\*, p<.001), '주민과의 관계향상을 위한 본인의 노력 정도'(F=24.98,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웃, 친구의 수가 '3명 이하' 또는 '4~6명'일 때보다 '7명 이상'일 때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하다고 느끼는 대상자와의 접촉빈도가 '거의 매일이다'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1주~1달에 1회' 또는 '1년에 몇 번 이하'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보다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웃주민과의 관계가 '보통이다' 또는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일 때보다 '잘 지내고 있다'고 했을 때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과의 관계 향상을 위해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 경우가 '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경우보다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주 후 이웃주민과의 관계망이 귀농자들의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된다.

표 6에서는 농촌생활에 따른 불편인지 수준과 농촌생활만족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6개 영역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에 따른 문제인지(r=-.155\*\*\*, p<.001)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농촌에서 '취미·문화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인지할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문제(r=-.155\*, p<.05) 역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 농촌에서 '병·의원의 수 부족 등 보건, 의료서비스 시설이 열악하다'고 인지할수록 농촌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편의시설문제 역시 부적상관관계(r=-.125\*, p<.05)를 나타냈다. 즉 '생활용품 구입하는 편의시설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지할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족·친척·이웃·친구들과의 교류문제 역시 높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17\*\*\*, p<.001). 즉 인적교류에 있어서 '교류가 적어 외롭다'고 느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 교통문제 역시 '불편하다'고 느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183\*\*\*, p<.001). 마지막으로

표 6. 농촌생활 불편인지 수준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구 분		농촌생활만족도
여가문제	취미·문화생활을 하기 어렵다	-.155***
의료문제	병·의원의 수 부족 등 보건·의료서비스시설이 열악하다	-.115*
편의시설 문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125*
인적교류 문제	가족·친척·이웃·친구들과의 교류적어 외롭다	-.317***
교통문제	교통이 불편하다	-.183***
경제활동 문제	취업이나 부업갖기 등 경제활동을 위한 기회가 적다	-.216***
총 문제인식 정도		-.268***

\*p<.05 \*\*p<.01 \*\*\*p<.001

로 '취업이나 부업갖기 등 경제활동을 할 기회가 적다'고 인지할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16\*\*\*, p<.001). 전체적으로 농촌생활에 따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불편하다고 인지할수록 농촌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68\*\*\*, p<.001).

### 3. 귀농 후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농촌이주 전 관련변인, 농촌이주 후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24.1%이다. 그 중에서도 건강상태( $\beta = .347***$ , p<.001), 가족형태( $\beta = -.122*$ , p<.01), 주관적 경제수준 ( $\beta = .262*$ , p<.001)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이 좋지 못한 사람보다 귀농 후 농촌생활만족도가 높고, 현재 혼자 사는 귀농인 보다는 부부 또는 노부모나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때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은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다고 느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델에 농촌이주 전 과정 변인들의 모델이 투입되자 영향력의 일부가 사라졌다. 즉 농촌이주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오직 건강상태였고, 가족형태와 주관적 경제수준의 두 변인들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모델에 농촌이주 후 과정 변인들이 투입되자 건강상태 영향력은 지속이 되면서 가족형태, 주관적 경제수준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농촌 이주 전과정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24.1%에서 37.2%로 13.1%의 증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농교육 도움수준( $\beta = .319^{***}$ ,  $p < .001$ )과 농촌이주 자금수준( $\beta = .165^*$ ,  $p < .05$ ) 변인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이주를 위한 영농교육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귀농자가 영농교육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귀농자보다 농촌생활만족도가 높고, 또한 농촌이주 시 투자한 총자금이 많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촌이주 전 과정 모델에 농촌이주 후 과정의 변인들이 투입되었을 때, 변인들의 영향력은 조금 약화되었지만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촌 이주 후 과정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40.5%로 12.7%의 증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관계항상노력수준( $\beta = .223^*$ ,  $p < .05$ )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즉 주민들과의 관계항상을 위한 노력 정도가 높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농촌 이주 후 농촌생활적응에 있어서 귀농자의 현재 건강상태와 함께 영농교육의 도움

을 많이 받고있는 귀농자 일수록 농촌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으며, 농촌이주를 위한 자금 수준과 이웃주민들과 잘 지내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 정도가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 은퇴자들의 농촌 이주가 도시와 농촌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농촌이주 후 농촌생활의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귀농인의 농촌이주 전 과정과 농촌이주 후의 두 단계 체계로 나누어 각각 관련되는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들이 귀농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71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귀농자 40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농촌이주 전 변인, 농촌이주·후 변인)에 따라 농촌생활만족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는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재 ‘건강이 매우 좋다’고 한 귀농자의 농촌생활만족도가 높고,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을 때 농촌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농촌이주 후 농촌생활 적응에 있어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인은 건강과 경제수준으로 농촌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한 후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는 두 요인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촌으로 이주하기 이전의 변인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정도를 보면 농촌이주 결심계기, 농촌이주 준비여부, 농촌이주 총자금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농촌이주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마음에 드는 곳이 생겨서, 경제적인 여건, 건강상의 문제, 직장상의 문제에 의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자가, 가족간의 갈등문제로 인한 이주 귀농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고,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에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귀농자의 농촌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동하(1998)의 귀농준비 여부에 따라 농촌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농촌이주 자금이 많아질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농촌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만족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촌이주를 위해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긍정적인 요인이어야 하며, 또한 농촌이주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자금의 마련

표 7. 귀농 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독립변수	종속변수	농촌생활 만족도					
		I		II		III	
		B	$\beta$	B	$\beta$	B	$\beta$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025	.013	.124	.058	.009	.044
	연령	.000	.016	.000	.028	.000	.009
	교육수준	-.008	-.015	-.005	-.094	-.005	-.195
	건강상태	.218	.347 <sup>***</sup>	.248	.417 <sup>***</sup>	.207	.349 <sup>***</sup>
	가족형태	-.290	-.122 <sup>**</sup>	-.179	-.068	-.126	-.049
농촌이주 전 변인	주관적경제수준	.185	.262 <sup>***</sup>	.006	.088	.007	.107
	농촌거주경험여부			-.100	-.065	-.126	-.082
	영농교육도움수준			.240	.319 <sup>***</sup>	.176	.222 <sup>**</sup>
	농촌이주준비여부			-.002	-.015	.000	.005
농촌이주 후 변인	농촌이주자금수준			.005	.165 <sup>*</sup>	.005	.186 <sup>*</sup>
	주택소유여부					.005	.030
	영농정보만족수준					.005	.077
	마을주민관계수준					-.001	-.017
	관계항상노력수준					.191	.223 <sup>*</sup>
통계적 지표	농촌생활불편인지수준					-.004	-.054
	상수항	2.329 <sup>***</sup>		1.511 <sup>***</sup>		1.212 <sup>*</sup>	
	F값	19.03 <sup>***</sup>		9.141 <sup>***</sup>		6.341 <sup>***</sup>	
	R <sup>2</sup>		.241		.372		.405
R <sup>2</sup> 증가량				.131		.033	

\* p<.05 \*\* p<.01 \*\*\* p<.001

1. 성별 : 남자 1 여자 0으로 가변수 처리
2. 가족형태 : 혼자산다 1 나머지 가족형태는 0으로 가변수 처리
3. 농촌거주경험여부 : 있다 1, 없다면 0으로 가변수 처리
4. 농촌이주준비여부 : 준비하였다 1, 준비하지 않았다를 0으로 가변수 처리
5. 주택소유여부 : 본인소유 1, 나머지를 0으로 가변수 처리

이다. 충분한 이주자금은 농촌생활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반대로 이주당시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아져 바로 또 다른 탈농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귀농 후 경제활동과 수입의 정도는 은퇴 후 노인생활 자체를 좌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촌이주를 결심하게 되기까지 도시민들이 막연히 갖고 있는 농촌은 스트레스가 없고, 여유있는 생활이라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현실과 기대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농촌으로의 귀농을 희망한다면 농촌생활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임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홍보 등 사전준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사일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주한 귀농인들의 능력에 맞는 작업방법 등이 개발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으로 이주한 후의 관련변인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농정보에 대한 만족도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정보원을 통해 들어온 영농정보들이 만족하다고 느낄 때 농촌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사회적지원망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이웃·친구의 수, 친밀하다고 여기는 사람과의 접촉빈도, 주민과의 관계 정도, 주민과의 관계향상을 위한 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웃,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친밀한 대상자와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이웃주민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들과의 관계 향상을 위해 본인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원망 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농촌으로 이주하여 이웃민과 원만한 상호작용에 의해 농촌적응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단위 공동행사 참여 등을 통해서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귀농생활의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농촌생활에 따른 불편인지 수준과 농촌생활만족도 관계는 여가문제, 의료문제, 편의시설문제, 가족·친척·이웃·친구들과의 교류문제, 교통문제, 경제활동 문제 등 6개영역 모두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농촌생활이 불편하다고 인지할수록 농촌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생활 인식수준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에서는 도시생활의 익숙함과 편리함의 인식과 농촌 전원생활의 낭만적 기대감이 높을수록 그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생활의 문제 영역의 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농촌이주 전 관련변인, 농촌이주 후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24.1%이다. 그 중에서도 건강상태, 가족형태, 주관적 경제수준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이 좋지 못한 사람보다, 현재 혼자 사는 귀농인 보다는 부부 또는 노부모나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때, 주관적 경제수준은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다고 느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델에 농촌이주 전 과정 변인들의 모델이 투입되자 농촌이주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오직 건강상태이었고, 가족형태와 주관적 경제수준의 두 변인들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모델에 농촌이주 후 과정 변인들이 투입되자 건강상태 영향력은 지속이 되면서 역시 가족형태, 주관적 경제수준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농촌 이주 전과정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37.2%로 증가를 보였다. 영농교육 도움수준, 농촌이주 자금수준 변인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이주를 위한 영농교육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귀농자가 농촌생활만족도가 높고, 농촌이주 시 투자한 총자금이 많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촌이주 전 과정 모델에 농촌이주 후 과정의 변인들이 투입되었을 때, 변인들의 영향력은 조금 약화되었지만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이주 후 과정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40.5%로 증가를 보였다. 관계향상 노력수준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관계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가 높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는 것은 귀농자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영농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귀농자 일수록 농촌생활에 더 만족하였고, 농촌이주를 위한 자금이 마련되어 이주한 귀농자일수록, 이웃주민들과 잘 지내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이 많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요인은 농촌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귀농인이 아닌 은퇴한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이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후속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성이 87.7%(358명), 여성이 12.3%(50명)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귀농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주체인 남성이 조사에 적극 응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

해 농가를 방문했을 때 부인은 귀농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 조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은퇴 귀농의 현상은 계속이어 질 것이며, 단독귀농이 아닌 부부귀농, 가족귀농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을 포함한 가족간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일하는 여성과 동거 가족의 귀농에 대한 실태와 농촌생활적응을 위한 노력정도를 좀 더 폭넓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귀농 후 이주민의 거주지역은 농촌이라는 공간으로, 농촌지역은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의 도시라는 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새로운 농촌지역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귀농을 원하는 본인 가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 원주민인 농촌주민들이 외부인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각과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이 집단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요인을 도출해 내는 연구로 막상 은퇴 후 농촌이주를 적극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인 방안제시에 그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귀농인의 수요 및 욕구에 부응하는 대책이 아주 필요한 때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도시과밀화와 농촌 인구감소, 인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촉진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 공간 조성방안'을 수립 중에 있는 이때, 계속적으로 은퇴 후 귀농인에게 적합한 귀농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은퇴자 농촌이주를 위한 one-stop 매뉴얼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대구, 김경남, 김민수, 이웅, 변규식(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농림부
2. 고승덕(1996),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구본석(1999), 귀농자의 영농정착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동근(1998), 농업정책방향과 귀농대책, 농촌회생과 자립적 농업을 위한 귀농정책세미나 자료, 서울: 전국귀농운동본부
5. 김성수, 정지용, 임형백, 고운미, 김정태, 이성(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 53-65
6. 김성훈(2006), 장수시대의 도래와 인생의 이모작 설계,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II. 도농교류 심포지엄 자료집,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3-23
7. 김재돈, 남철현(1997),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협회지 23(2) : 173-192
8.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9. 김형용(1998),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 205-223
10. 남정덕(2000), 귀농형 실버타운의 보급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1. 농림부(2000),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농림부
12. 농림부(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보고서, 농림부
13.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을 중심으로
14.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4), 일본의 농산어촌 고령자 대책, 농촌진흥청번역서, 203-204
15.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4), 농촌자원개발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 개발연구소
16. 농촌진흥청(1998), 귀농농가의 경영모형 길잡이, 농촌진흥청
17. 농촌진흥청(2004),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역별 고령화 특성 및 변화분석,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18. 농촌진흥청(2006),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II, 도농교류 심포지엄자료집
19. 박광희, 한혜정(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1 : 43-61
20. 박상철 편(2002), 한국의 백세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1. 박영일(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 귀농사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2. 박충선(1990), 한구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 115-153
23. 보건복지부(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24. 배민식(1999), 최근의 귀농동향과 지원책 모색, 농민과 사회, 15,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5.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2001),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건강하고 보람있게, 제2차 도농녹색교류심포지엄 자료집
26. 서규선, 변재면(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 137-153
27. 서미경, 김정석(1995),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보건사회연구 15(2) : 97-116
28. 서병숙, 이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 43-57

29. 서울대학교한국농선회(2000), 귀농자들의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농림부
30. 신윤철, 김동섭, 배성의, 윤준상(1998), 귀농자의 귀농 동기 및 배경특성 분석, 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개발연구, 59-70
31. 원영희(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 97-116
32.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이정화(2005), 도시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 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3) : 139-153
33. 윤순덕(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4. 이동하(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이정관(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분석,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6. 이병철(1999), 귀농: 우리는 왜 귀농해야 하는가?, 두레
37. 이영은(1990), 노인의 성격유형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이형실(1999), 농촌 부부가구노인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19(3) : 109-120
39. 임혜영(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이영대(1981), 성공적인 영농종사자의 영농정착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 장인협, 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42. 정철영(1999), IMF에 따른 귀농희망 실업자를 위한 영농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1) : 1-26
43. 정한모(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 조동석(1998), 지역 귀농인들의 영농실태와 그 개선 대책 연구: 칠곡군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5. 조록환(1998), 귀농가구의 생활실태 분석, 농촌생활과학 19(1) : 38-41
46. 천규식(1997), 귀농(歸農) 왜 어떻게 해야 하나, 경향잡지, 1997년 7월호 : 33-40
47. 최원규, 백승우(2001), IMF 이후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 나눔의 집
48. 통계청(2002),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고령자-, 통계청
49. 한경혜, 윤순덕(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 163-178
50. 한국노년학회(2000), 노년학의 이해, 대영출판사
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52. 한승옥(1985), 지식인의 귀농의미 재고, 고려대학교 어문논집 124(1) : 833-844
53. Bock, E. W, & Webber, I. L.(1972), Suicide among the elderly: Isolating widowhood and mitigating alterna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 24-31
54. Carlson, J. E., Junk, V. W, Fox, L. K., Rudzitis, G. & Cann, S. E.(1998), Factors affecting retirement migration to Idaho: an adaptation of the amenity retirement migration model, The Gerontology 38(1) : 18-24
55. Costello.(1977), Urbanization in middle ea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50
56. Graff, T. O. & Wiseman R. F.(1978), Changing concentrations of older Americans, The Geographical Review, 68 : 379-393
57. Graves, N. B. & Graves.(1974), Adaptive strategies in urba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3 : 121-126
58. Lee, A.(1980), Aged migration: Impact on service delivery, Research on Aging 2 : 243-253
59. Lee, On-Jook.(1980), Urban-to-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60. Lee, On-Jook & Kim, Kyong-Dong.(1980), Migration and Adaptation to the City: Comparative Profile of Returners and Stayers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 8
61. Melville, M. B.(1978), Mexico women adapt to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2
62. Moore, J. M.(1971), Mexican Americans and cities: A study in migration and the Case of Informal Resourc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5 : 93-294
63. Mullins, L. C. and Dugan, E.(1990),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family and friendship relations on residents' loneliness in congregate housing, The Gerontology 30(3) : 377-383
64. Palmer J. and Gould S.(1986), Economic consequences of population aging in our aging society: paradox and promise. N.Y : 367-390
65. Fielding. G. J.(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cations

66. Roseman, C. C.(1981),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the Midwest, NCRC, Iowa State Univ
67. Sjoberg, G.(1969), Cities in Developing and in Industrial Societies: A Cross Cultural Analysis. in Philip M. causer & Leo. F. Schnore(eds.), The Study of Urbaniz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68. Sterns, H. L. & Sterns, A. A.(1995), Health and the employment capability of older Americans. In BASS, S. A.(Ed.), Order and Active: How Americans over 55 Age Contributing to Society, New Haven. C. T : Yale University Press. p. 11
69. Stuefen, R. M. & Dykstra, D. V.(1997), Growth. diversification and in-migration: South Dakota's economic awakening, South Dakota Business Review, 56(1)
70. Warnes, A. M., 1980, The characteristic of retirement migrants, in: Herbert. D. T. and Johnston, R. J. (eds.), Geography and the Urban Environment, Vol. 3, Chichester: Wiley : 175-222
71. \_\_\_\_\_ and Law, C. M.(1982), The destination decision in retirement migration, in: Warnes. A. M.(ed.),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the Elderly, Chichester: Wiley : 53-81

---

\* 접수일 : 2006년 10월 31일